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모순

움베르토 벡 / 패트릭 아이버

멕시코 콜레히오 데 메히코 역사학 교수 / 위스콘신 대학교 역사학 교수

원제와 출처: Humberto Beck y Patrick Iber "AMLO y sus contradicciones",
Nueva Sociedad, No. 285, mayo-junio de 2022, pp.57-69.

핵심어: 민주주의, 리더십, 개혁,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암로(AMLO), 멕시코

2021년 12월 1일, 멕시코시티의 중앙 광장인 소칼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¹⁾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이런 규모의 대중 집회는 2년 만이었다. 전국에서 버스가 도착했는데, 일부는 여당 국가재건운동(Morena)²⁾ 집권한 지자체에서 동원했고, 일부는 노조가 동원했다. 몇 시간에 걸친 뮤지컬

1) 멕시코에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의 머리글자만 따서 암로(AMLO)라고 부르기도 한다. 필자들이 언급하는 집회를 일러 2021년 암로페스트(AMLOFest 2021)라고 하는데, 이때 25만 명이 운집했다(역주).

2) 모레나(Morena)는 현 집권당인 국가재건운동(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의 약자이다(역주).

공연이 끝나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등장했다. 지지자들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러러보는 대통령이 나타나자 환호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표적인 정책과 미래 계획을 강조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사고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³⁾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한다고 자랑하는 동안, 소칼로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경제연구교육센터(Centro de Investigación y Docencia Económicas: CIDE) 학생들이 2021년 11월 정부가 임명한 총장에게 항의하려고 정문 앞에 모인 것이다. 경제연구교육센터는 사회과학 교육에 특화된 명문 공립 대학이다. 국립멕시코 대학교(UNAM)의 재학생은 20만 명을 상회하지만, 경제연구교육센터 재학생은 400명에 불과하다. 이 기관은 1974년 좌파 민족주의 대통령인 루이스 에체베리아가 경제 정책을 조언할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설립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들 덕분에 명성을 얻게 되었고, 가끔 시장 경제학도 교육했다.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연구교육센터가 “공공 서비스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⁵⁾

경제연구교육센터 학생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2021년 가을에 취임한 총장이 교수 승진과 교수직 유지에 관한 관행을 무시하자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공공서비스를 정부 지지와 동일시하는 분위기에서는 정부 계획이나 정책과 어긋나는 연구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자유가 실

3) 《Discurso del presidente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a 3 años de gobierno 2018–2021》, disponible en <<https://lopezobrador.org.mx/2021/12/01/discurso-del-presidente-andres-manuel-lopez-obrador-a-3-anos-de-gobierno-2018-2021/>>.

4) Mauricio Tenorio Trillo: 《¿Por qué la inquina contra el cide?》 en *Reforma*, 21/11/2021.

5) Eduardo Dina: 《Los neoliberales hicieron del CIDE una versión ‘hasta de segunda’ del ITAM: AMLO》 en *El Universal*, 28/1/2022.

질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두려움은 학계에 대한 또 다른 공격과 관련이 있다. 2021년 초, 멕시코 정부는 국가 지원을 받은 몇몇 과학자의 연구비 횡령 사건 처리로 국제적인 비난을 샀다. 정부는 과학자들에게 유리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약 밀매자에게나 적용하는 엄격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⁶⁾ 경제연구교육센터 학생들과 교수진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가 학계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건축 정책을 이용하여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기관을 옥죄고 있다고 우려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지지자 집회(AMLOFest)와 경제연구교육센터 학생 집회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권의 성격을 시사한다. 비록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0% 안팎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지만, 부정 평가도 2019년 14%에서 2022년 2월에는 39%로 증가했다.⁷⁾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광범위한 국민에게 인기가 있어도 대통령의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과 멀어지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자신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관점에서 판단한다. 언젠가 아침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자랑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점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누가 진정한 국민이고 누가 이기적인 엘리트인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대통령의 논리로 보면, 비평가들(학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다양한 활동가들)은 기득권과 구(舊)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대통령 지지

6) Christine Murray: 《Mexican President's War on 'Neoliberalism' Moves on to Campus》 en *Financial Times*, 4/11/2021. 필자들이 인용한 이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판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1명의 과학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더라면 [...] 마약왕 ‘엘 차포’ 구스만을 포함하여 중범죄자들이 수감된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것이다(역주).”

7) Datos disponibles en Javier Márquez: 《Aprobación presidencial》 en *Oraculus*, 5/4/2022, <<https://oraculus.mx/aprobacion-presidencial/>>. 이 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부정 평가는 39%가 아니라 37%이다. 이때 긍정 평가는 59%이다(역주).

자들 역시 이런 비판을 되풀이하고 있다. 친여 언론인 히브란 라미레스는 경제연구교육센터 논성을 “소풍”이라고 일축했다.⁸⁾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990년대 말 멕시코가 경쟁 민주주의(competitive democracy)로 전환한 이후 좌파로서는 처음 집권한 대통령이다.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공약한 대로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임기 중에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확장되기를 바랐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포퓰리즘 운동이 민주주의에 유해한 것만은 아니다. 정치권에 참신한 목소리가 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소외된 그룹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권한을 행사하고 특권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 운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에게 상징적인 힘을 불어넣고, 독립적인 기관과 사회 운동을 공격하며, 충성에 기반한 새로운 특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집권한 이후 몇 년 동안 멕시코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포퓰리즘 경향이 공존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민주적 리더십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개인적인 권위만이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조금 나아진 노동자들

2021년 6월에 실시된 중간 선거(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여권 연합(집권 여당 국가재건운동은 두 개의 작은 정당과 제휴했다)이 주지사직에 도전할 수 있는 첫 기회였다. 여권 연합은 15개

8) 《Gibrán Ramírez se burla de protesta en el CIDE: 'Es un picnic de juventudes neoporfiristas'》 en *Reporte Indigo*, 2/12/2021.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승리했다. 반면에 하원에서는 밀렸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집권 이전의 주요 정당, 즉 장기 집권하던 제도혁명당(PRI), 우파인 국민행동당(PAN), 중도 좌파인 민주혁명당(PRD) 계열이 야권을 형성했다. 야권의 선전으로 국가재건운동은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건운동은 2024년에 치를 차기 대선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이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멕시코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멕시코시티의 지방 선거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층에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018년 대선 승리는 계층을 초월한 지지의 결과였다. 그러나 2021년 여당은 멕시코시티 선거구 중 절반 이상에서 패배했는데, 이는 명목상 좌파 정당으로는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인구가 8백만 명이 넘는 멕시코시티는 오랫동안 좌파 정당의 거점이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에브라르드는 모두 멕시코시티 시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중간 선거 운동 기간에 발생한 멕시코시티 지하철 붕괴 사고로¹⁰⁾ 에브라르드와 세인바움은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부실 공사를 하고 유지 보수를 등한시했다는 것은 승객의 안전보다 정치적 편의를 앞세운 결과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부자 동네가 있는 멕시코시티 서부에서 여당이 패배했다는 것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잘난쟁이'(fifí)

9) 멕시코 헌법 개정은 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21년 총선에서 여권 연합은 하원 의석 500석 가운데 278석을 얻었고, 야권 연합은 199석을 얻었다(여주).

10) 2012년 5월 3일 22시 22분(현지 시간 기준)에 멕시코시티 지하철 12호선의 고가 구간이 붕괴하여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을 포함하여 총 27명 사망하고, 79명이 부상을 입었다. 12호선은 2012년에 개통했는데, 이때 멕시코시티 시장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였고, 사고가 발생한 2021년 시장은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었다(여주).

라고 조롱하는 부유층의 예상 가능한 적대감이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의 지지도도 하락했다는 뜻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멕시코시티 동부에서의 강세는 지지 기반의 충성도를 보여준다.

멕시코시티 동부 지역이 이런 충성도를 보인 이유 가운데 일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사회 프로그램이 비록 제한적이지만 실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2019년 평균 노동 소득이 2005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국가인데,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최저 임금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여당은 2022년도 22% 인상안을 포함하여 일련의 인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실질 임금의 65%를 인상했다.¹¹⁾ 여러 집단 중에서 학생층과 노령층에 대한 현금 이전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타개하겠다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도 선거에서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멕시코의 빈곤 인구는 7% 증가했는데,¹²⁾ 이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동 기간에 사회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56% 증가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현금 이전이다.¹³⁾

여당이 추진한 노동 개혁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현 USMCA)의 요구에 따라, 여당은 새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허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더 유리한 조건에서 독립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이는 의미 있는 개혁이고,

11) Jon Martín Cullell: 《El salario mínimo en México subirá un 22% en 2022》 en *El País*, 2/12/2021.

12) Datos disponibles en Consejo Nacional de Evaluación de las Políticas de Desarrollo Social (Coneval): 《Medición de la pobreza, Pobreza en México . Resultados de pobreza en México 2020 a nivel nacional y por entidades federativas》, <www.coneval.org.mx/medicion/mp/paginas/pobreza_2020.aspx>.

13) Rodolfo de la Torre: 《Avanza la pobreza y retrocede la política social》 en *El Gatopardo*, 10/8/2021.

14) Joyce Sadka: 《Hearing on "Mexico's Labor Reform: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an Improved NAFTA》, 2019, disponible en <<https://waysandmeans.house.gov/sites/democrats.waysandmeans.house.gov/files/documents/Sadka%20Testimony.pdf>>.

민주적인 개혁이다. 20세기에 줄곧 정권을 장악한 제도혁명당의 반(半)권위주의 정권에서 강력한 노조는 정치적 충성의 대가로 주요 부문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 노조는 정권의 중요한 기둥이었다. 노조 지도자들은 부를 축적했지만,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제 한층 민주적인 노조 대표성은 새로운 노동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 쉐보레(Chevrolet)와 GMC 픽업트럭을 조립하는 실라오(Silao) 시의 제너럴 모터스(GM) 공장의 노동자들은 압도적 찬성표로 독립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제도혁명당 시절부터 공룡으로 군림한 노조와¹⁵⁾ 결별했다. 예전 협약에서 임금은 일당 23달러가 정점이었고, 노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막는 등 일상적인 학대가 있었다. 독립 노조 설립자들은 협박과 위협을 극복하고 승리했다. 이러한 성공은,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노동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특히 민간 부문에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개정된 노동법이 장려하는 노동 세력화가 확립된다면 멕시코에서 지속적으로 부가 재분배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될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권력 집중화와 투명성 부족이 개혁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회 정책에서는 수혜자 등록부터 현금 이전의 사회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모호하다. 정부의 말과는 정반대로, 사회적 지출은 사실 전임 대통령 시절보다 더 적으며, 그보다 진보적이지도 않다.¹⁶⁾ 주요 공공 부문 노조의 발전 역시 고무적이지 않다. 국영석유회사 페멕스(Pemex)의 노동조합은 수십 년 동안 부패로 악명이 높았다. 노조 지도부는 마이애미와 칸쿤에 있는 콘도에서 보란 듯이 즐겼다. 2019년에는 장기 집권하던 노조위원장을 압박하여

15) 여기서 공룡이란 멕시코노조연맹(CTM) 소속 노조를 가리킨다(역주).

16) Máximo Ernesto Jaramillo-Molina: 《Los mitos de la política social de la 4T》 en *Nexos*, 29/6/2021.

사임하게 했지만, 검찰청(공식적으로는 독립 기관이지만 대통령과 한편으로 인식한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거나 질질 끌었다. 많은 사람은 페멕스 노조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호 세력으로 남겨두고자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노조 지도부의 비민주적 관행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실라오의 GM 공장 노동자들과 거의 동시에 투표한 페멕스 노동자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페멕스 노동자들은 사임한 위원장의 측근을 선출했다. 독립 노조 후보자들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협박 전술과 후견주의(clientelismo)를 동원했다고 폭로했다.¹⁷⁾

에너지 개혁

페멕스는 가난한 남동부 지역 개발하려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계획의 핵심이자 ‘에너지 주권’이라는 목표의 핵심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부채가 많은 페멕스에 자본을 투입하고, 신용을 확대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¹⁸⁾ 이와 더불어 연방 정부는 오래된 정유공장을 복구하고, 새로운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텍사스에 있는 정유공장을 매입하기도 했다.¹⁹⁾

에너지 주권의 목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국영전력회사인 연방 전력공사(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력 시장

17) Carlos Montesinos: 《STPRM: de vuelta al mismo lugar de Romero Deschamps》 en *Reporte Índigo*, 2/2/2022.

18) 《Pemex y CFE, las mayores apuestas del gobierno pierden 319,734.5 mdp en 2021》 en *El Ceo*, 4/3/2022.

19) Francesco Manetto: 《López Obrador persigue su sueño petrolero con un plan de soberanía energética para México》 en *El País*, 29/12/2021.

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헌법 개혁안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제안한 배경이기도 한다. 정부의 견해로, 기존 에너지법(2013년 헌법 개정의 결과)이 “규제 혼란”을²⁰⁾ 야기하고,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느라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낭비하고 있다.²¹⁾ 로시오 날레 에너지 장관은 에너지 시장을 민간 기업이 통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시장의 변동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²²⁾ 에너지 개혁안은 국가가 다시 전기를 관리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국가 안보 위협을 줄이려는 것이다.²³⁾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 개혁안이 통과되면 송전망 접속에서 연방전력 공사 산하 발전소가 민영 발전소보다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로써 대부분 민간 기업이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²⁴⁾ 게다가, 이 개혁안에 따르면, 연방전력공사는 적어도 멕시코 전체 발전량의 54%(현재는 38%)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 발전소는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화석 연료에 더 많이 의존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국제 환경 단체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멕시코의 정책과 조치를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비재생 에너지 도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²⁵⁾

20) Rodrigo Benedith: 《La reforma eléctrica de amlo busca arreglar la reforma fallida de EPN》 en *The Washington Post*, 5/10/2021.

21) Oriol Malló: 《Industria eléctrica y soberanía energética: lo que está en juego》 en *Jornada*, 12/4/2021.

22) Javier Lafuente y Sonia Corona: 《Rocío Nahle: ‘No nos va a venir nadie de fuera a decir si la reforma energética está bien o mal’》 en *El País*, 17/10/2021.

23) 《CFE: falacias y realidades》 en *Jornada*, 1/2/2021.

24) Isabella Cota y J.M. Cullerl: 《La iniciativa energética de López Obrador margina a las renovables en favor de la CFE》 en *El País*, 2/2/2021.

25) Información disponible en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mexico/targets/>>.

또 에너지 개혁안은 에너지 생산을 조정하는 기관을 폐지하고(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매장량이 상당한 리튬 개발을 국가가 독점할 것이다.²⁶⁾ 이러한 변화 추구는 권력이 갈수록 연방 정부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공공 기관, 기업 및 정치 행위자에 대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불신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2022년 4월 18일 멕시코 하원에서 에너지 개혁안이 부결된 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진 야당 의원을 “매국노”라고 불렀다.

자주론

국제 관계 학자 나탈리아 살탈라마치아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자주론(autonomism)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약소국이 외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국의 목표를 추구하려면 자주권 확장에 집중해야 된다는 신념이다. 동일한 사고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적용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9세기 자유파 정치인 베니토 후아레스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후아레스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다른 나라의 내부 사정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이념적이지 않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트럼프가 쿠바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추구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멕시코의 외교 정책은, 예전에 라틴아메리카 지역 분쟁을 중재하려던 제도혁명당 정부와 유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26) J.M. Cullell: 《Reforma eléctrica: López Obrador concentra el poder en la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en *El País*, 1/10/2021.

지난 1년 동안 멕시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환 의장국을 맡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 공동체(CELAC)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공동체는 일부 국가, 특히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와 같은 비민주적인 국가가 일종의 ‘미국 없는 미주 기구(OAS)’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구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21년 9월 라틴아메리카 국가 공동체 정상회담 연설에서 “봉쇄와 열악한 대우 정책”을 끝내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 없이 아메리카의 이익을 위해 함께하자”라고 촉구했다. 또 “현 유럽 연합의 기원이 된 경제 공동체”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가입 조건으로 법률 구조와 경제 정책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다. 전 주미 대사인 마르타 바르세나 코키가²⁷⁾ 지적했듯이, 유럽 연합은 “국가 주권을 초국가 기구에 양도한 돌도 없는 예다.”²⁸⁾

미국의 제재는 사실 쿠바와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을 야기했다. 그리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정부를 약화시키는 커녕 강화한 것이 틀림없다. 이론적으로는 멕시코와 같은 국가가, 베네수엘라의 정부와 야당 간 협상과 같은 민감한 협상을 주최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종종 내정 간섭으로 해석한다.²⁹⁾ 예를 들어, 2021년 11월 부정 선거를 치른 대(對)니카라과 제재에 우려를 표명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관영 매체를 차단하려는 노력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27) 마르타 바르세나 코키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주미 대사를 역임했다(역주).

28) M. Bárcena Coqui: «¿Es posible la unión latinoamericana?» en *El Heraldo*, 3/8/2021.

29) «Mexico Declines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en *Reuters*, 2/3/2022.

멕시코 외교부의 최근 대응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칭찬했다.³⁰⁾ 2021년 8월 멕시코 외교부는 멕시코 내 폭력과 불안정의 한 원인을 제공한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멕시코에서 사용된 총기를 추적한 결과 70%가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이 받아들인 이 소송은 멕시코라는 시장과 범죄 단체의 구미에 맞춰 무기를 제조한 미국 총기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총기 구매자들과 밀수업자들은 매우 느슨한 미국 총기법을 이용하여 무기를 구입한 다음 멕시코로 운반한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멕시코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유독성 폐기물이나 다른 오염물질을 국경 너머로 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쟁 무기를 마약 카르텔의 손에 넘기고 나서 책임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³¹⁾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멕시코의 무장 폭력에 대한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마도 상업적,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보수 세력”에 대한 반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를 국민보다는 정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멕시코에 대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때때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리더십이 민주주의의 제도나

30) Natalie Kitroeff y Oscar Lopez: 《Mexico Sues Gun Companies in us, Accusing Them of Fueling Violence》 en *The New York Times*, 4/8/2021.

31) Zach Murdock: 《Mexico Sues us Gun Manufacturers, Including Colt’s Manufacturing in Connecticut, over Weapons Trafficking that Arms Dangerous Drug Cartels》 en *Hartford Courant*, 24/8/2021

원칙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것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나 멕시코가 권위주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당내에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분과가 있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법안 중 일부는 의회에 묶여있다. 그리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에 대한 갖가지 실망에도 불구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히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일정 부분 구태의연하고 비민주적인 전통, 특히 국가 원수만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

2022년 3월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지지율이 54%로 떨어졌는데, 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정부가 이전 통치자들과 “같지 않다”는 주장은 최근 스캔들 때문에 손상되었다.³²⁾ 지난 2022년 1월, 한 언론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자식 중 한 명이 미국 휴스턴의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중산층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³³⁾ 이 아들은 현재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트렌 마야(Tren Maya)³⁴⁾ 건설을 감독하는 사업가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응하여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수입과 재산 및 사업 파트너와 가족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라고 관계 기관에

32) Alejandro Moreno: 《Casa Gris le ‘cuesta’ a amlo: Aprobación baja a 54% en febrero》 en *El Financiero*, 1/3/2022.

33) Carlos Lorete de Mola: 《Los lujos que sataniza AMLO, su hijo mayor los goza》 en *El Universal*, 28/1/2022.

34) ‘트렌 마야’은 유카탄 반도의 주요 도시(팔렝케, 캉쿤 등)를 잇는 철도 건설 사업명이다. 총 연장 1,554km에 달한다(역주).

요청했다.³⁵⁾ 이같은 언론에 대한 적대감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증폭되고 있으며, 멕시코는 이미 언론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

집권 후 3년 동안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치 담론은 미묘하게 바뀌었다. ‘권력 마피아’를³⁶⁾ 겨냥한 반(反)과두적 논의는 점차 줄어들고, 그 대신에 보수 세력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언급하는 보수 세력이란 기업인, 언론인, 지식인, 페미니스트, 인권 운동가, 심지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막연한 집단이다.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정부의 적’으로 인식한다는 것뿐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민중’(pueblo)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명하지만, 집권 이후 이 민중의 범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경향의 극단적인 예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INE)의 갈등이다. 조작 선거는 20세기 내내 멕시코 정치의 일부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멕시코 민주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 기관을 걸림돌 취급하다가 이제는 멕시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부른다. 이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적대감에 대해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관료들은 민주주의의 적은 포퓰리즘(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이르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말로 응수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화는 2006년

35)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요청한 관계 기관은 멕시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INAI: Información y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이다(역주). (<https://politica.expansion.mx/presidencia/2022/02/15/amlo-pide-al-inai-investigar-riqueza-de-loret-de-mola-y-familiares>)

36) 독점 재벌과 부패 정치인의 동맹을 이르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용어.

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에 처음 출마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 미만의 차이로 패배했다. 그후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시에는 IFE라고 불렀다)가 부정 선거를 획책했다고 확신하는데,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런 논리라면,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당이 승리한 2018년 이후의 여러 선거를 조작한 책임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당 부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권한 범위 밖에 있다. (1996년 이래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건축 정책으로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 문제는 2021년 4월에 실시된 초유의 대통령 신임 투표(revocación de mandato)를 앞두고 정점에 달했다. 대통령 신임 투표는 2019년 집권 여당이 도입한 것으로, 국민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불신’하는지 판단하려는 직접 민주주의 수단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인기를 고려할 때, 투표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³⁷⁾ 하지만 이번 투표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21년 6월 지방선거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당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산이 빠듯한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재신임 투표도 상당한 부담이다. 2020년 12월,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회는 재무부가 소요 자금을 지급할 때까지 재신임 투표 준비를 일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의 중진들은 검찰 총장에게 선관위 위원들을 구속하고, 향후 선거는 연방 정부가 준비하라고 요구했다.³⁸⁾

37) 반대파가 대부분 기권함으로써 투표자의 91%가 AMLO의 “계속 집권”에 찬성했다.

38) M. Albert Hernández: 《Mario Delgado considera que hay que ‘exterminar’ al INE tras cancelación de candidaturas de Morena》 en *El Financiero*, 29/3/2021.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위원과 직원의 급여와 혜택이다. 삭감된 예산으로 재신임 투표까지 실시하라는 것은 급여를 삭감하라는 간접적인 압력이지만,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보하지 않았다. 재무부가 추가 재원 지원을 거절하자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신임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의 3분의 1만으로 투표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 사람들은 즐겁게 일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다”라면서 “이 모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으려는 것이다. 앞으로도 평평거리며 살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했다.³⁹⁾ 그러나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점이 무엇이든 간에 연방 정부가 선거를 관리한다면, 다가오는 투표의 공정성을 정말 의심스럽게 만들 것이다.

줄타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민주적 포용력 확대와 리더십 강화(민주적 제도를 희생한 대가)라는 포퓰리즘의 상반된 경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줄타기를 했는데,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긍정적인 요소들(사회 프로그램, 새로운 노동법, 총기 제조업자들에 대한 소송)은, 다른 정부가 했더라도 그보다 못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칭찬할 만하다. 다른 요소들은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민주적인 의견 차이의 범주 내에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철저한 조사에 대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저항과 대통령의 통제를 선호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39) 《López Obrador afirma que el ine realiza la consulta de revocación ‘a regañadientes’ en *El Sur*, 23/2/2022.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가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민중이 다스립니다.” 이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누가 민중이고 누가 아닌지 밝혔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권력입니다. 지식인의 권력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권력도 아니고, 언론인의 권력도 아니고, 전문가의 권력도 아니고, 재벌의 권력도 아닙니다. 모두의 권력입니다.”⁴⁰⁾

박병규 옮김

40) 《AMLO insistió que el INE sí tiene presupuesto para la Revocación de Mandato: 'El pleito no es conmigo'》 en *Infobae*, 17/1/2022.